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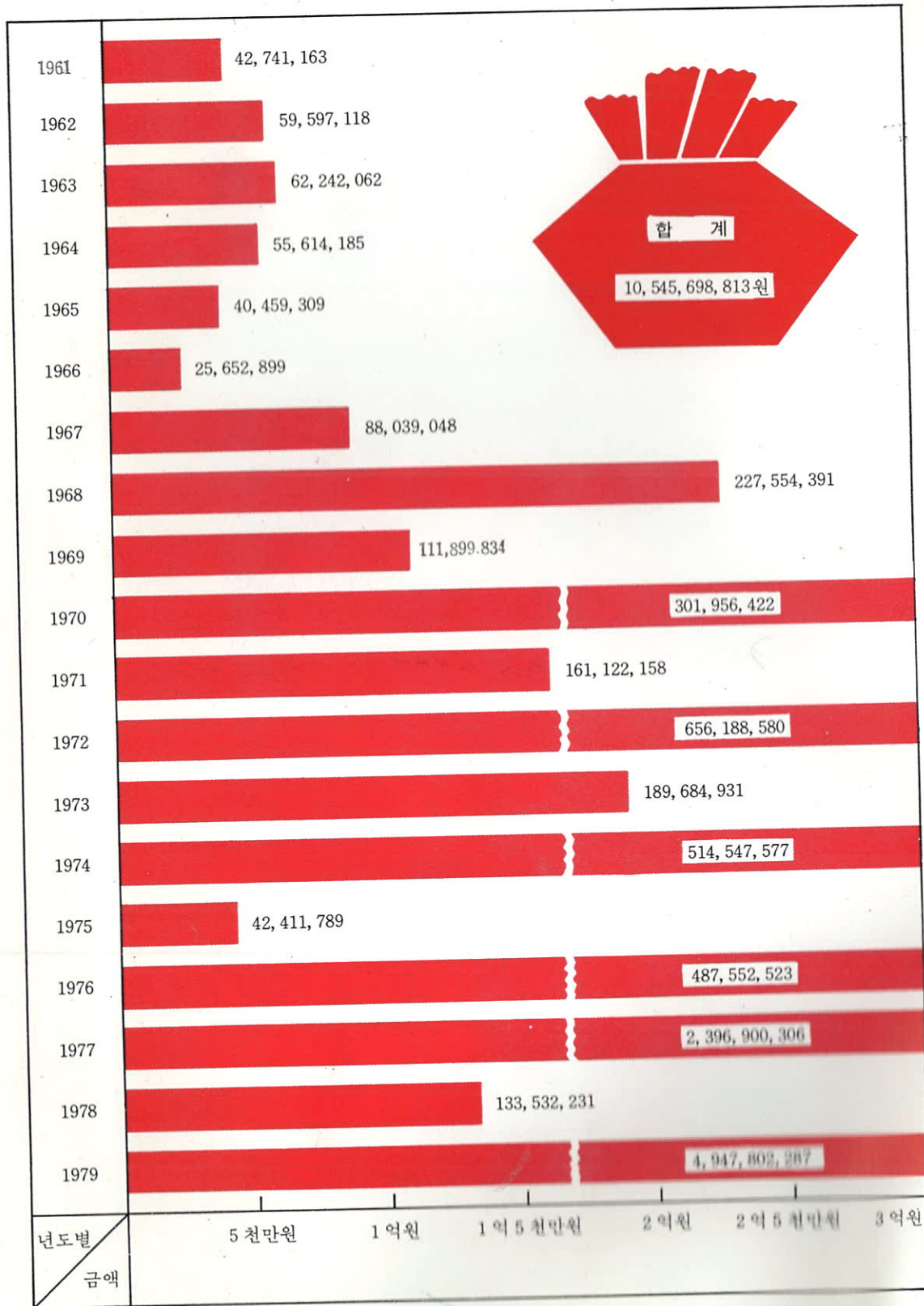
모금과 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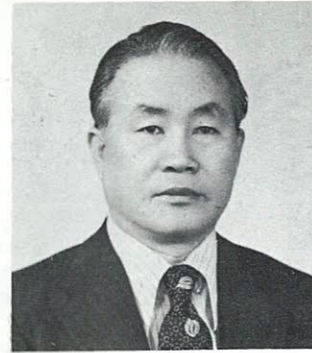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도표로본 년도별 재해모금상황

(1961년 - 1979년)



머 리 말



우리는 매년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수해 및 한해등 천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거액을 투입하여 재해복구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한된 재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동족들이 겪는 불의의 재난을 정부의 힘에만 의존해서 구호 할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서로 돕는 동포애로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이재민 구호와 재해 복구의 발판이 되고자 힘써 왔습니다.

창립 20개 성장에 걸쳐서 우리 협의회에서 모금한 성금은 1백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많은 돈은 주택복구비를 비롯하여 구호 양곡대 및 긴급 구호비 등으로 신속 정확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각계 각층으로부터 기탁 되어 온 5백여만점의 각종 구호품이 현지 이재민에 신속하게 전달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불의의 천재를 당하여 이재민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재해 구호를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정성을 모아 평소에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겠으며 불의의 큰 재해를 만났을 때에는 재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민 동포를 내자녀 내친지를 도와 주듯이 도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해 동안 재해모금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기관과 정성어린 성금품을 모아 보내 주신 국내동포 및 해외동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그동안 우리 협의회는 업적을 대강 간추려 알려 드립니다.

1980년 4월

전국 재해대책 협의회

회장 류 달 영